



創立40주년 맞은  
大韓建築學會

## 建築文化창달로 經濟發展에 기여

- 會員數 2 천6백의 大學術團體로 成長



金 眞 - 회장

○ 建築에 관한 학문기술을 연구·연마하여  
○ 건축기술자의 지위향상과 상호간의 친목을  
○ 도모하여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 으로 1945년 9월 1일 설립된 大韓建築學會  
○ 가 올해로써 創立 40주년을 맞았다. ○  
○ 國內 학술단체중 최초로 설립된 건축학회  
○ 는 40년이란 연륜을 쌓아오는동안 우리나라  
○ 건축문화 창달에 일익을 담당해왔을 뿐만아  
○ 니라 학술연구사업을 위시하여 각종 사업  
○ 들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정  
○ 상급 학술단체로서 괄목할 만한 成長을 이  
○ 룡했다. ○  
○ 이제 圓熟한 장년기에 접어든 同學會 金  
○ 眞-회장(漢陽大공대교수)을 만나 그동안  
○ 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이  
○ 무엇인가 알아본다. ○

『1945년 광복의 감격과 함께 새로운 祖國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뜻을 같이한 建築人들  
에 의해 국내학술단체중 최초로 설립된 大韓  
建築學會는 오늘날 과학기술학술단체중 가장

으뜸가는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民族史의  
격동기에 온갖 우여곡절끝에 40년이라는 연  
륜을 쌓아오기까지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  
의 터전을 마련하는 한편 학술연구사업을 버  
릇, 정부 및 산업체에 대한 자문, 학회지 및  
학술서적발간,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개최, 외  
국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등 각종 학술활동을  
활발히 추진해오으로써 국내 정상급 학회로  
써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金眞-회장은 해방과 함께 폐쇄한 조국강  
산의 재건을 위해 사명감에 투철했던 당시의  
건축학도와 건축기술인들이 대동단결하여 결  
성한 건축학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다한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會勢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우리나라 국민경제 발  
전에 기여해온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  
한다.

특히 60년대 후반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발  
전을 가속화시킨 제반요인가운데 첫째로 꼽  
히는 건설분야의 해외진출을 들수 있으며  
'86아시안경기 및 '88서울올림픽경기에 대비  
한 재개발사업과 국민생활환경개선에 주도  
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새로운 주택문화 창조  
와 고층건물기술고도화를 이룰 수 있었던것  
은 그동안 쌓아온 고급인력의 기술향상과  
연구개발 및 기술축적의 결과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오늘의 건축학회가 있기까지 역대  
회장단을 비롯한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밀거름이 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지난 40년을  
회고한다.

건축학회는 창립당시는 朝鮮建築技術團으로 발족했으나 2년후인 47년 4월에 朝鮮建築技術協會로, 49년 12월에는 다시 大韓建築技術協會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50년 6·25동란으로 인하여 학회사무실이 전화에 소실되는등 학회 업무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54년 3월에 비로소 오늘날의 大韓建築學會로 발족,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학회초창기인 50년 이전에는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만 건축공학과가 있었으나 지금은 대학교에 건축공학과가 44개학과, 건축학과는 8개학과, 그리고 전문대학 55개학과에 설치되어있어 해마다 배출되는 건축학도만도 엄청난 숫자에 달하지요』 金회장은 이와 더불어 건축학회 회원도 늘어나 현재 회원수가 2천 6백여명에 달하는 대학회로 발전했다고 흐뭇해한다.

또한 부산, 경남지역을 비롯 대구, 경북, 전남, 전북, 충청, 제주등 6개지역에 지부가 설치돼 있고 산하에 건축계획위원회를 비롯 주택문제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교육위원회등 23개 상설위원회가 있어 전문분야별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우리학회는 창립4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몇가지 기념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9월21일부터 3일간 한양대학교와 호텔등에서 학술발표회, 특별강연회, 韓·日주거단지 계획비교토론회, Siporex에 관한 세미나등 학술행사와 기념식, 기념소연 그리고 회원간의 친선을 도모하기위한 바둑대회와 테니스 대회등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창립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리되지 않은채 산재해 있던 학회 및 건축에 관련된 각종자료를 수집·정리하여『建築學會 40年史』를 발간했습니다』 金회장은 지난해 가을에 착수하여 1년여만에 자체경비 2천 6백여만원울 들여 발간된 『건축학회 40년사』는 건축계의 사라져가는 有形無形의 자료를 총정리한 학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계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힌다.

『또 40주년을 기점으로 그간 격월로 펴내던 學會誌「建築」의 편집내용을 크게 개편, 「잡지」와 「논문집」으로 완전분리시켜 잡지는 홀수달에 논문집은 짝수달에 발간, 매월간행물을 펴낼 계획입니다.』 金회장은 앞으로 새 모습의 「건축」은 매호마다 기획특집으로 꾸며 특색있는 잡지로 편집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진정한 「회원들의 대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金회장은 앞으로 남은 과제는 자체 회관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숙원사업인 건축회관 건립을 위해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각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아쉬워 한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닭아 놓은 터전위에서 우리의 건축문화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인 모두가 노력해야할 때 입니다.』 金회장은 지금부터가 바로 학회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계가 도약의 나래를 펴고 이나라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힘써야 할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옛전통도 지키면서 새로운 傳統文化를 창조하는데 앞장서야 할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건설중인 건축물은 21세기에도 활용될 건물들입니다.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변형을 시켜서 새로운 형태를 창조할것이나 하는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金회장은 단 하나의 건물이라도 당장의 활용도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성 있게 건축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한다.

『건축은 전통적으로 個의 완성품이지요. 이 個의 완성이 전체의 안전으로 이해하는 愚를 되풀이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연구나 개발에서 있을수 있는 일이기에 學會는 건축을 비롯한 사회환경이 個의 100점보다 전체로서의 80점을 얻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金회장은 끝으로 學會는 조직적으로서의 협력과 개인의 존엄을 논리적으로 양립시켜나가면서 국제 수준의 학회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한다. (權光仁 記)